

충남, 유럽서 미래 먹거리 찾는다… 외자유치·AI 허브 승부수

박수현 지사, 독일·이탈리아 순방
민선 9기 첫 글로벌 투자협약 추진
배터리 W사 당진 생산라인 신설
교황청과 세계청년대회 협력 확대
레오 14세 교황 충남 방문 요청

충남도가 민선 9기 첫 외자유치와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교황청과의 협력 확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수도 충남' 실현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일부터 29일까지 일정, 독일과 이탈리아를 방문해 투자 유치와 세계청년대회, UN AI 허브 협력 등 충남의 미래를 위한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지난 22일 독일로 출국해 23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재독 충청향우회와 간담회를 갖고, 24일에는 현지 진출 국내 기업인들을 만나 유럽 시장 진출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일·이탈리아 국외출장 계획과 외자유치, 교황청·UN AI 허브 협력 구상 등을 설명하고 있다.

확대와 충남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독일 대표 산업도시 루트비히스하펜의 바스프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과 도내 투자 현황 및 향후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추가 투자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25일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외자유치 협약과 외국인 기업 간담회, 충남 수출상담회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외자유치 협약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배터리 업체 W사가 당진 송산외국인투자지역에 배터리팩 제조라인을 신규 설치하는 내용이다. 도는 이번 투자가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지사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화학 분야 등 충남에 투자한 유럽 기업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추가 투자 가능성을 모색한다. 수출상담회에서는 도내 기업들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도 살핀다.

독일 일정을 마친 뒤 로마로 이동해 26일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한다. 유홍식 추기경 등 교황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해마국제성지를 비롯한 충남의 천주교 문화유산을 알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내년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방안을 논의하고 레오 14세 교황의 충남 방문을 희망한다는 뜻도 전달할 예정이다.

27일에는 로마의 유엔 AI 허브를 찾아 국제사회의 AI 정책과 글로벌 협력 동향을 공유하고 충남이 추진 중인 '대한민국 AI 수도' 구상을 설명한다.

도는 이번 방문을 통해 UN AI 허브의 충남 유치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의료·교육·돌봄·기후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활용하는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박 지사는 이후 이탈리아 북부 볼로냐로 이동해 28일 마켈레 데 파스칼레 에밀리아로마냐주지사를 만나 양 지역의 산업·경제적 강점을 공유하고 경제·산업과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

고성 등 여행비 절반 환급

경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하반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3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찾은 관광객이 현지에서 쓴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제도다. 관광객의 방문과 소비를 늘려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환급 한도는 2인 이상 팀 여행 시 최대 20만원, 개인 여행 시 최대 10만원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여수시

COP33 남중권 유치 영상 공모

여수시가 COP33을 둘러싼 국민 참여형 영상 캠페인을 시작한다. 짧은 영상에 개최지 유치 메시지와 지역의 특색을 담아 남해안 남중권의 존재감을 알리고 기후행동에 대한 관심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기원 UCC(영상) 공모전'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데 대한 지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남해안 남중권을 개최 후보지로 선정정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넓히는 데 의미를 뒀다. /여수(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사천시

27일 사랑의 헌혈행사 개최

사천시가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함께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앞 노을광장에서 '사랑의 헌혈행사'를 연다. 헌혈문화 확산과 혈액 수급 안정화가 목적이다. 사천시보건소는 지역 주민이 생명나눔과 사랑의 실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행사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혈액 보유량은 통상 5일분 이상이면 적정 단계로 분류되며 5일분 미만은 관심, 3일분 미만은 주의, 2일분 미만은 경계, 1일분 미만은 심각 단계로 나뉜다. 사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혈액 수급 차질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하동군

1인당 민생지원금 30만원 지급

하동군이 지속되는 고유가·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하동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며 2026년 8월 7일 기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 대상이다.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도 포함된다. 앞서 하동군의회의는 지난 8월 5일 관련 조례와 예산을 의결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류 하동사랑상품권 70억원과 모바일 상품권 50억원을 더해 총사업비 12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방학에도 경계선 지능·난독 지원

경북교육청, 초등학교 125명 치료 전문 치료사가 직접 찾아 20회 진행

경북교육청은 경계선 지능과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초등학교 125명을 대상으로 '2026 찾아가는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치료 지원 사업'을 방학 중에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은 학생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 진단과 맞춤형 치료를 통해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6월 학생과 전문 위탁기관 간 매칭을 마치고 경계선 지능과 난독 여부, 학습 어려움의 원인과 정도 등을 진단해 학생별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 치료기관의 치료사가 학생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학생별 총 20회기의 맞춤형 치료를 진행한다.

학생과 보호자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방학 중 발생할 수 있는 학습과 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 지원을 계속한다.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은 학교와 가정, 전문가 간 협력을 통해 학생의 학습·치료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변화와 성장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의 배움은 방학이라고 멈추지 않으며 기초학력 지원 역시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어려움을 살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하고 방학 중에도 학습안 전망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주, 외국인 관광객 19% 늘었다

APEC 개최효과 국제 인지도 상승
중 16.5% 최다, 대만·일본 뒤이어

경주시는 한국관광데이터랩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경주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이 70만7,197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59만4,502명보다 11만2,695명 늘어난 규모다.

시는 지난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높아진 경주의 국제적 인지도와 관심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지난해 같은 달보다 방문객이 늘었으며, 증가율은 5월 34.0%, 4월 22.1%, 6월 21.7%, 2월 20.5% 순이었다.

월별 방문객은 1월 6만5,687명, 2월 6

만7,822명, 3월 11만1,230명, 4월 16만2,605명, 5월 16만2,013명, 6월 13만7,840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비중은 중국이 16.5%로 가장 높았고 대만 9.3%, 일본 6.4%, 미국 6.1%, 필리핀 4.5% 순으로 나타났다. 홍콩과 베트남은 각각 4.0%, 인도네시아 3.9%, 러시아 3.8%로 뒤를 이었다. 권역별로는 아시아권이 60.0%, 유럽권 10.5%, 미주권 8.7%였다.

경주시는 국가별 관광시장 특성에 맞춘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효과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외 관광시장 공략과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민 기자 jingon@

창원, '청정에너지 수도' 도약 박차

산단 태양광·EMS 구축 본격화

창원시가 재생 에너지를 직접 생산·활용하는 '청정에너지 수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RE100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 제조 기업이 밀집한 창원에서도 재생 에너지 확보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시는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봉암공단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 자족형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공모를 통해 국비 200여 원을 확보했으며, 2026~2029년 10MW 이상 규모의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관리 시스템(EMS)을 구축할 계획이다.

입주 기업에는 에너지 진단과 탄소저감 컨설팅을 지원하고, 발전 수익을 기업

과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햇빛소득' 모델도 추진한다.

산업단지 내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수곡·창곡일반산업단지는 공장 지붕 발전 사업을 허용하고, 안골·죽곡2 산업단지와 해양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조성 단계부터 태양광 설비를 반영한다.

시는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략조정실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제도 개선과 신규 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 육성 범위도 소형 모듈 원자로(SMR)와 수소로 넓힌다. 원전 관련 기업 약 150곳이 모인 지역 산업 기반을 활용해 SMR 관련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법 시행에 맞춰 연구개발특구 지정 전략도 마련할 방침이다. 진해신항은 '수소에너지항'으로 육성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산근현대역사관서 즐기는 야외영화

29일 야외광장서 문화행사 '스즈메의 문단속' 야외 상영

부산관광공사는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앞 야외 광장에서 무료 문화 체험 프로그램 '주파수 0829: CINEMA NIGHT'를 개최한다.

행사가 열리는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은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공간이다.

부산관광공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 예술인과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 행사 모델을 만드는 계획이다.

행사장에서는 같은 시간대 플리마켓이 함께 열린다. 지역 셀러들이 참여해 ▲액세서리 ▲캔들 ▲비누 ▲패브릭 ▲가죽 공예 등 핸드메이드 제품과 ▲일러스트 ▲굿즈 ▲스티커 ▲엽서 등 디자인

·아트 상품을 선보인다.

▲타로 ▲사주 ▲운세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형 콘텐츠도 마련되며 완제품 식품과 디저트, 빈티지 의류와 소품, 식물 등도 판매된다.

핵심 프로그램인 야외 영화 상영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영화의전당과 협업체 준비한 상영작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으로, 국내에는 2023년 3월 개봉해 관객을 모은 작품이다. 관람객은 역사관 야외 광장에서 여름밤 정취를 느끼며 영화를 즐길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영화와 문화, 여유를 함께 즐기는 특별한 여름밤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